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3년째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 임직원 성금 기부

2025. 1. 20.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왼쪽)가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지난 16일 최은화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장에게 전달했다

- CFS 임직원 9,275명, 연말연시 맞아 기부금 7,888만 9천 원 마련
- 2023년부터 임직원 성금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 전달 누적 1억 2,023만 1천 원 기부
- CFS, 국민통합위원회가 뽑은 '2024 아름다운 동행 기업' 선정 “올해도 나눔과 봉사 지속”

2025. 01. 20.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 임직원들이 3년째 소아암 어린이 돕기에 나섰다.

CFS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대회의실에서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 환아를 돕기 위한 임직원 성금을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에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CFS 임직원들은 2023년 환아를 위한 기부 및 물품 후원 2,637만 5천 원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1,496만 7천 원을 전달했다. 이어서 올해는 9,275명이 무려 7,888만 9천 원의 성금을 마련해 누적 1억 2,023만 1천 원을 기부하게 되었다.

CFS 조직문화팀은 지난 연말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으기를 진행했다. 이에 전국 각지의 임직원들은 천 원, 만 원, 삼만 원 오만 원 등 자발적으로 기부금 모으기에 동참했다.

엄성환 CFS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달해 드린다”며 “어린이들의 건강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CFS는 의미 있는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최은화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장은 “3년째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나눠주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린

다”며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치료받는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FS는 지난 20일 국민통합위원회가 뽑은 ‘2024 아름다운 동행 기업’에 선정돼 ‘아름다운 동행상’을 수상했다. 올해도 지역 사회와 이웃을 위한 봉사과 나눔을 지속할 계획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